

지역 매아리

유기상 고창군수

무더위 쉼터 찾아 어르신 안부 챙겨

유기상 고창군수가 지난 1일부터 관내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경로당을 직접 방문해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어르신들의 안부를 챙기고 있다.

유 군수는 냉방기 가동상태, 무더위 쉼터 운영시간 등 쉼터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수칙 등 폭염대비 행동요령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유 군수는 "점심 식사 이후에는 경로당에서 건강체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하시면서 시간을 보내 달라"며 "꼭 필요한 농작업은 이른 아침에 2명 이상이 함께 해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군은 폭염기간 재난대책반을 상시 운영하며 '생활밀착형 폭염대책'을 추진 중이다. 우선, 무더위쉼터(마을경로당 590개소)에 대한 냉방기 점검과 수리를 완료했다.

또 폭염취약계층인 독거노인과 건강만성 질환자를 위해 재난도우미 등을 활용해 일일건강을 점검하고, 쿨방식, 쿨스카프, 생수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 군 내도로에 살수차를 동원해 도로열기를 식히고, 고창종합버스터미널 등 4개소에 얼음 비치와 생수배부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고창군 관계자는 "폭염에 취약한 노약자나 어린이는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보건소, 치매 가족 지원사업

23일까지 '헤어림' 참여자 모집

정읍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8월 23일까지 치매 환자 가족 교실 '헤어림'에 참여하고자 하는 희망자를 모집한다.

'헤어림' 가족 교실은 치매 환자 가족과 경도인지장애(치매 전 단계)를 진단 받은 환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한다.

치매와 돌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돌봄 역할을 강화해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준비됐다. 다음 달 9월 3일부터 10월 1일까지 총 8회기에 걸쳐 주 2회로 진행된다.

가족들이 '헤어림' 교실에 참여하는 동안에는 치매 어르신들을 위한 동반 치매 환자 돌봄서비스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가족 교실은 매주 주제별로 ▲치매에 대한 바른 이해 ▲정신행동 증상 및 치매의 위험요인 ▲치매 진단 및 치료와 관리 ▲마음 이해하기 ▲부정적 태도 극복하기 ▲의사소통방법학습 및 응용 ▲남아있는 능력 찾기 ▲가족의 자기 돌보기 순으로 진행된다.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통해 치매 어르신과 행복하게 지내는 중요한 기술을 자세히 배운다. /정읍=김대환 기자

# 2023 부안 세계잼버리 홍보

## 군, 제24회 북미 세계잼버리 참관 ... 권익현 군수 일행 대회기 이양 받아

부안군은 미국 웨스트버지니아에서 개최 중인 제24회 북미 세계스카우트잼버리(7월 22일~8월 2일)에 권익현 부안군수와 이한수 부안군의회의 의장 등을 비롯한 총 18명 규모의 참관단이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1일까지(현지시각) 참관했다고 밝혔다.

이번 북미 세계잼버리에는 한국대표단 500여명이 참가했으며 여성가족부와 송하진 전북도지사, 권익현 부안군수, 한국스카우트연맹 등 100여명이 함께 참관해 오는 2023년 제25회 부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개최를 전 세계에 알렸다.

부안군 참관단은 현지에서 지난 22일 출국한 27명의 부안군 대표 참가단을 격려했으며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해외 스카우트 대원들의 2023년 부안 세계잼버리 참가를 유도했다.

또 잼버리 진행상황과 시설물 설치, 영지 운영 등 2023년 부안 세계잼버리 성공 개최를 위해 전반적으로 잼버리 활동장 등을 둘러봤다.

7월 31일에는 여성가족부와 한국스카우트연맹이 주최하는 한국 리셉션



부안군은 미국 웨스트버지니아에서 개최 중인 제24회 북미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 권익현 부안군수와 이한수 부안군의회의 의장 등 18명의 참관단이 참관했다.

에 참석해 전 세계 회원국 대표단 300여명을 대상으로 아름다운 부안을 소개하고 2023년 부안 세계잼버리를 홍보했다. 특히 권익현 군수 일행은 8월 1일 폐영식에 참석해 4년 뒤 차기 세계잼버리 개최지로서 대회기도 이양 받았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이번 북미 세계

잼버리 참관을 통해 많이 보고 배워 4년 뒤 세계스카우트 대원들이 우리 부안 새만금에 와서 그들의 꿈을 그릴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며 "전 세계 회원국 참가자들이 2023년 부안 세계잼버리에 꼭 참여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했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 부안군, 폭염대응 종합대책 추진

### 22개소 그늘막 추가 설치, 10개소 NH농협 기부채납

### 무더위쉼터의 냉방기 가동상태 점검완료 등

부안군은 연이어 폭염주의보가 발효되고 폭염이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본격적인 폭염대응 종합대책 추진에 총력을 펼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안군은 올 여름 무더위에 대비해 유동인구가 많은 횡단 보도 및 주요 도로변에 22개소의 그늘막을 추가 설치했으며 그중 10개소는 NH농협의 기부채납으로 설치돼 총 35개소의 그늘막이 재역할을 다하고 있다.

또 취약한 노약자나 거동불편자 등이 한낮 폭염을 피해 편히 쉴 수 있도록 무더위쉼터의 냉방기 가동상태 점검을 완료하고 금융기관 29곳을 추가 지정해 운영되고 있다.

특히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대비하고자 T/팁 재난대응체계를 가동하고 부안군 협업부서와 읍면사무소가

함께 폭염취약계층 특별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며 분야별 폭염대응 활동으로는 공무원&홀몸어르신 1대 1 사랑잇기 추진, 온열질환 감시체계 운영, 농업분야 재해상황실 운영 등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매일 3회 자동음성통보 시스템을 통해 안내방송과 전광판, 문자메시지 발송 등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재난도우미, 지역자율방재단 등이 취약계층, 영농·건설현장 등을 직접 방문해 한 건의 폭염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폭염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부안군 관계자는 "폭염이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투입해 무더위쉼터 이용객들에게 양산 및 텀블러 등을 배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이한수 부안군의회의 의장을 비롯한 부안군의원 4명이 제24회 북미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참관했다.

## 부안군의회, 북미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관

이한수 부안군의회의 의장을 비롯한 부안군의원 4명이 7월 25일부터 8월 4일까지 제24회 북미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참관했다.

이번 북미 세계잼버리에는 약 160개국 4만 5000여 명의 스카우트 대원 및 지도자가 참가했으며 부안군 대표 참가단 27명을 비롯한 한국대표단 500여명이 참가하고 송하진 전북도지사, 권익현 부안군수 등 100여명이 참관해 세계잼버리를 함께 경험했다.

특히 이번 참관기간 동안 이한수 의장 및 의원들은 북미 세계잼버리에 참가한 여러 나라의 스카우트 지도자들과 만나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 대해 준비사항 및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 공유와 함께 잼버리 활동장의 우수사례들을

연구하고 벤치마킹해 새만금 세계잼버리에 접목할 부분을 마련하는데 주력했다.

세계잼버리는 4년마다 펼쳐지는 세계 규모의 스카우트 행사로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991년 강원도 고성에서 제17회 세계잼버리를 개최한 바 있으며 오는 2023년 두 번째로 부안 새만금지구 일원에서 제25회 세계잼버리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한수 부안군의회의 의장은 "고성 세계잼버리 이후 32년 만에 광활한 부안 새만금지구에서 전 세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꿈과 희망의 텐트를 펼칠 것"이라며 "성공적인 새만금 세계잼버리 개최를 위해 의회에서도 아낌없는 지원과 활동을 추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 맑은샘자연교육농원 조금자 대표 먹기편한 '채소볼' 대통령상 수상

### "여러 차례 기술센터 찾아가 상담과 자문 통해 해법 찾았"

정읍시농업기술센터가 농업 분야 6차 산업화 추진체계 정착을 위한 농산물 가공창업 지원이 결실을 맺고 있다. 관련해 먹기 편한 채소 제품을 개발해 CEO가 된 귀농인 맑은샘자연교육농원 조금자 대표가 이의 대표적인 사례로 눈길을 끌고 있다.

평범했던 가정주부에서 연매출 20여원을 올리는 유망한 농식품회사 CEO가 된 조금자 대표. 특히 올해는 상반기에만 효소파장을 통해 15여명의 매출을 기록했다.

조 대표는 귀농해서 성공하기까지 그리 순탄치만은 않았다고 전했다. 조 대표는 "처음 귀농해서 5천여 평의 농장을 구입 후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난감했었다"며 "여러 차례 기술센터를 찾아가 상담과 자

문을 통해 해법을 찾고 반전의 계기를 마련,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했다. 관련해 조 대표는 지난 2014년 고소득 벤처 농업 육성사업을 통해 기술센터에서 1억원을 지원받아 농산물 가공제품 생산을 위한 기반체계를 구축했다. 2017년에는 채소볼을 개발했으며 올해는 채소수와 채소선식 등을 개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조 대표는 2015년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한 '6차산업 가공식품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2017년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한 KBS '나는 농부다 시즌 3'에 '채소볼'을 출품해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기도 했다.

기술센터 관계자는 "조 대표는 지역농산물 수매의 큰 손"이라며

"지난해 정읍 농가들과 계약재배를 통해 사들인 농산물만 1200에 달해 지역사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 대표는 정읍을 찾는 귀농인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앞으로도 특화작목 육성과 가공식품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도해 나가겠다"며 "농업인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련해 맑은샘자연농원에서 생산하는 채소볼 제품은 정읍지역에서 생산되는 적양파와 당근, 표고버섯, 고구마, 양배추, 단호박 등을 주원료로 한다. 채를 썰어 건조 후 혼합해 성형기로 1인분씩 맞춤형 포장 판매된다. 물에 10분간 불리면 원형대로 되살아나 비빔밥과 잡채, 야채전 부침용으로 손쉽게 사용할 수 있어 소비자들로부터 간편식으로 사랑받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 만찬주!  
부안강산뽕주  
선택했습니다.

정와대 만찬주!  
부안강산뽕주  
선택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뽕이 곱게 감싸움을 한껏 솔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변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영글어져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질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GIFT SET 1세 | 750ml 2ea, 잔 2ea/16% | GIFT SET 2세 | 750ml 2ea, 잔 1ea, 오프너/12% | GIFT SET 3세 | 750ml 1ea/12% | GIFT SET 4세 | 500ml 2ea, 잔 2ea/12% | GIFT SET 5세 | 375ml 5ea/13% | GIFT SET 6세 | 500ml 참뽕2ea/12%, 복분자1ea/13%, 잔 1ea, 오프너 | GIFT SET 7세 | 375ml 2ea/13%

**부안강산 뽕주**  
Premium Onda Wine

TEL : 063-584-9960  
www.gangsanwine.com